2. 경영경제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엄 행수는 마을 안의 똥거름을 쳐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행수는 막일을 하는 늙은이의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자목이 선귤자에게 물었다.

"그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는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 한 탯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엄 행수로 말하면 막일을 하는 하층의 처지요, 마주 서기 욕스러운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장차 교분을 맺어서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선귤자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엄 행수가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 그저 내가 늘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네. 밥을 자실 때에는 굴떡굴떡, 걸어 다닐 때에는 어청어청, 잠을 잘 때에는 쿨쿨, 웃음을 웃을 때에는 허허,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는 멍하니 보이네. 흙으로 쌓고 짚으로 덮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서는 등을 꾸부리고 들어가서 주둥이를 틀어박고 자네. 다시 아침나절에는 즐거이 일어나서 발채를 짊어지고 똥거름을 치러 마을 안으로 들어오네.

엄 행수가 뒷간에서 사람 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집 안 구석구석에서 닭똥, 개똥, 거위 똥, 돼지우리에서 돼지 똥, 비둘기 똥, 토끼 똥, 참새 똥 따위 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걸태질해* 가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단 말일세.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긁어모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화려한 차림새도 하려 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지.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일세.

엄 행수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때가 되고서야 또다시 한 그릇을 먹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무얼 하느냐고 하네. 또 의복을 차려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지도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 없다고 대답하네. 해가 바뀌어 설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갓 쓰고 웃옷 입고 띠 띠고 신도 새로 신고 동리 이웃 간을 두루 돌아다니며 새해 인사를 하지. 그러고 돌아와서는 헌 옷을 도로 꺼내 입고 발채를 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서거든. 엄 행수와 같은 분은 더러운 막일로 높은 덕을 가리고서 세상을 크게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이로 본다면 깨끗한 가운데도 깨끗지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일세.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엄 행수에 이르러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란 것이 없네.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적질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엄 행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아마 엄 행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 행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단 말일세. 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귀겠다고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 행수를 감히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고 일컫는 것일세."

*걸태질하다: 염치나 체면을 차리지 않고 재물 따위를 마구 긁어모으다.

*예덕(穢德): 더러운 것으로 덕을 쌓음.

(나) **[앞부분의 줄거리]** 나(정수)는 공부를 잘하는 형을 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 몰래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대관령의 넓은 채소밭을 본 뒤 그곳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하고, 나는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니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한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쥐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을 장만하였다.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 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코 삐뚤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옴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 삐뚤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그러니, 미씨다 방…….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 냉기지 말구섬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꿇어앉히구 항복 받구. 그리구 빼앗긴 것 일일이 도루 다 찾구. 집허구 세간 쳐부순 것 말끔 다 물리구……. 그렇게만 해 준다면, 내, 내, 재산 절반 노나 주문세, 절반. 응, 미씨다 방."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머, 지끔 당장이래두, 내 입 한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멘 엠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을."

"고마우이!" 백 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덥석 잡는다.

*도지(賭地):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의표(儀表): 몸을 가지는 태도. 또는 차린 모습.

*엠피(MP: Military Police): 헌병.

(다) **[등장인물]** **현철:** 국군 장교 **상상:** 국군 병사 **치성:** 인민군 군관 **택기:** 인민군 병사 **촌장:** 부락의 우두머리

[앞부분의 줄거리]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강원도 함백산의 숨겨진 마을 동막골에 낙오한 인민군, 전쟁에 회의를 느껴 탈영한 국군이 우연히 모여든다. 서로 뜻하지 않게 마주친 국군과 인민군은 부락민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다.

치성 입 다물고 손 올리라우!

현철 할 거 남았으면 해 봐라. 발 떼고 싶으면 떼고, 총질하고 싶으면 손가락이라도 까딱해 봐라. 다 죽자 하고 총질해 대 보면 결국엔 남는 놈 있을 테니까 그놈이 깃발 꽂고 이겼다 치자고.

택기 말뽄새 좋구만, 그 입으로 우리 입 막아 보라우. 수류탄 세 발 앞마당에 떨어질 테니 그때도 그렇게 설레발을 깔 수 있나 보자우.

현철 어르신, 이 부락은 죄다 빨갱이 신봉자들만 모여 있소? 정신 차리세요.

촌장 글쎄, 난 잘 모르겠구만. 그래, 그런 말 많이 들었지. 난리 통에 죄 없는 사람들…… 많이 죽었다 하더구만. 찢기고 말려 죽고……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 빨갱이가 뭐고 누가 우리 편인지…… 난리가 났다 해도…… 이 근방에선 포탄 하나 떨어지지 않았지. 밑에서 쌈질하는 거 영문도 모른 채 평안히 지내고 있으니까……여기서 편 가르고 적 만들어 죽일 생각은 하지 마시오. 내가 촌장이오. 내 생각이 부락의 생각이오. 이건 손들어 결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치성 우린 북쪽으로 갈 거외다. 우리가 운이 좋아 살아서 귀대를 하면 어느 격전지에서 마주칠 수도 있갔구만. 그때 쏘라우, 소위 양반.

택기 빨리 쏘아야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먼저 쏜다.

현철 몇 살이냐? 도대체?

택기 열일곱이다. 왜?

현철 내가 열 살이 많다. 말 좀 가려라.

치성 그럼, 나랑 띠동갑이구만.

현철 …….

상상 어…… 그럼 11년 돼지띠세요? 우리 아부지하고 동갑이네.

치성 자식 일찍 봤구만.

현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치성 서택기! 이 소위 양반한테 형이라 부르라.

택기 네? 아니…….

치성 그렇게 부르라. 그러면…… 이 소위 양반 나한테 큰 형님이라 부를 것 같지 않네?

현철 꿈 깨시지…….

촌장 자…… 자…… 보아하니 다들 내 손아래 같은데…… 그만들 칭얼대고…….

(라) 어느 날 아침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자신이 침대에서 흉측한 모습의 한 마리 갑충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철갑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들어 보니 아치형의 각질 부분들로 나누어진, 불룩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보였다. 금방이라도 주르르 흘러내릴 것 같은 이불은 배의 높은 부위에 가까스로 걸쳐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애처로울 정도로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하릴없이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레고르는 창문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우중충한 날씨에 그의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울적해졌다. '잠을 약간 더 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죄다 잊어버리는 게 어떨까?' 하고 그는 생각했으나 이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버릇이 있었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그런 자세로 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아무리 뒤척여 보아도 번번이 흔들거리며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자세로 되돌아올 뿐이었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다.

"대관절 어떻게 된 거냐?" 낮은 음성으로 아버지가 말했다.

이번에는 가느다란 음성으로 여동생이 애원했다.

"어디 편찮으세요, 오빠?"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 그레고르를 본 가족들은 크게 놀라고, 그레고르는 방에서만 생활한다. 그레고르를 혐오하게 된 아버지는 그에게 사과를 던져 큰 상처를 입힌다. 가족을 부양하던 그레고르가 경제력을 상실하자 가족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가족들은 직업을 구하고 하숙을 하며 살아갈 길을 모색한다. 하숙을 운영하던 중, 하숙인들이 그레고르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들은 화를 내며 나가 버린다.

"우린 이제 저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여동생은 이제 아버지에게만 말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느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것 때문에 두 분이 돌아가시고 말 거예요. 그럴 게 뻔해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힘들게 일해야 하는 처지에 집에서마저 이처럼 끝없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어찌나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는지 여동생의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 위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며 자신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렸다.

"얘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과 눈에 띌 정도로 확연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그럼 우리 어떡하면 좋겠니?"

"내쫓아야 해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것이 오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게 바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하지만 저것이 어떻게 오빠일 수 있겠어요? 저것이 오빠라면 진작 제 발로 나갔을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 곁에 오빠는 없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오빠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것은 우리를 쫓아다니며 못살게 굴고 하숙인들을 쫓아내면서, 이 집을 온통 독차지하고 들어앉아 우리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는 게 분명해요."

[뒷부분 줄거리] 날이 갈수록 상처가 깊어지던 그레고르는 음식을 거부하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다.

(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부버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유의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삼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의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

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의 '나'는 인격 전체이며,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 전체로 '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며,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이다.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 직원 A가 있다고 하자. A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조직 안에서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 또는 기능으로 만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해도 그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A와 직장 동료의 업무적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A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 나오는 것을 상상해 보자. 그때 A와 아이는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라는 기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그 전체가 총동원되는 '나'와 '나'의 만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상대방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바) 레비나스는 1906년에 리투아니아의 유대인 사회에서 태어난 프랑스 철학자이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나의 영향권 아래 종속시키기 위하여 전체주의 이념을 강요하는 것을 비판하며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기 입에서 나온 빵, 자기 빵 한 입을 주는 것, 지갑을 여는 것을 넘어서 대문을 여는 것"이라며 '타자 지향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적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문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 문제를 넘어 인간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인간적 삶에 대한 것이자 바람직한 사회상에 관한 것으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당위적 해결책보다는 인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필요하다.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은 자기 자신에게 전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으로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타자에 대해 책임지고 타자를 환대하는 윤리적 주체를 끌어내는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은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존과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바탕이다.

(사)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 준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다. 사연인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몸소 후원에 나가 늦은 저녁을 지어 왔다. 저녁을 먹인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더운 물을 떠다 주었다.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지만 스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을 들어 주는 데에 크게 감동한 것이었다.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에게는 백천 마디 좋은 말보다는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던 것이다.

산에서 살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않던 아름드리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 끝에 사뿐

사뿐 내려 쌓이는 그 가볍고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사밧티의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귀 앙굴리말라를 귀의시킨 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아니었다.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비였다.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귀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작품 속 인물 A가 인물 B를 일컫는 표현의 변화가 나타난다. 제시문 (가)~(라)에서 인물 A가 인물 B를 바꿔 부르는 '이유'를 찾고, 이렇게 바뀐 표현 속에 담긴 인물 A의 '감정'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여동생과 그레고르의 관계를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평가하고, 그레고르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여동생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어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계약자를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이름을 각각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명명하였다. 이 보험회사는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계약자의 사고 횟수에 따라 계약자가 속하는 그룹을 해마다 1월 1일에 재분류한다. 다음의 표는 올해 1년 동안 발생한 사고 횟수 에 따라 각 그룹에 속했던 계약자들이 내년에 어느 그룹에 속하게 될지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저위험군에 속한 계약자의 사고 횟수가 한 번일 때 내년에 중위험군으로 재분류된다.

		사고 횟수 X에 따라 재분류될 내년의 계약자 그룹			
		$X = 0$	$X = 1$	$X = 2$	$X \geq 3$
올해의계약자 그룹	저위험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사고 횟수 X는 계약자 그룹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X	0	1	2	3	4 이상	합계
$P(X = x)$	0.1	0.2	0.3	0.2	0.2	1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그룹에 속한 계약자에 대한 연 보험료는 각각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이다

[문제 3] **올해 계약자 그룹의 재분류 후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그룹에 속한 계약자 수가 각각 200명, 300명, 100명이라고 하자. 보험회사가 내년에 계약자들로부터 받을 연 보험료 총액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단, 보험 계약자의 추가 및 해약은 없다고 가정한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평가목표와 출제의도

평가목표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3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3 경영경제계열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명칭/호칭/지칭'이다. 구체적으로 1) 국어, 문학, 독서, 사회문화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명칭/호칭/지칭의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텍스트 독해력, 2) 인물 간의 관계 맺음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른 양상을 띠게 되며, 이러한 양상이 타자를 일컫는 방식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주어진 제시문에서 도출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 종합하는 맥락적 사고력, 3) 이러한 타인에 대한 명칭/호칭/지칭의 변화에 동반되는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는 유추적 사고력, 4)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명칭/호칭/지칭'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지문에 나타나는 명칭/호칭/지칭의 변화, 변화의 이유, 내재된 감정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단순 요약이 아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특정 글의 논지에 근거하여 다른 글에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비판적 사고력, 3) 서로 보완적인 관점들을 활용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취해야 할 태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타자와의 관계 맺음 방식에서 기능적 관계 맺음과 온전한 주체로서의 관계 맺음을 구분하여 기능적 관계 맺음의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넘어서 포용적 관계를 맺기 위해 타자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는 윤리적 주체가 되는 자세와 타자를 사랑과 자비로 대하는 실천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추론해야 한다.

[문제 3] 일상생활에서의 수많은 복잡한 상황들을 더 쉽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확률적 문제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상황에 따른 확률변수와 확률분포를 이해하고, 그 기댓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확률적 상황 및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본 문제에서는 이산확률변수 및 그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기댓값을 계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본 문제는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며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 있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박지원, 「예덕선생전」, 최원식 외 13인, 『문학』, 창비, 2018, 92-96쪽.
- 제시문 (나): 채만식, 「미스터 방」, 김창원 외 11인, 『문학』, 동아출판, 2018, 22-28쪽.
- 제시문 (다): 장진, 「웰컴 투 동막골」, 이삼형 외 7인, 『국어』, 지학사, 2017, 66-68쪽.
- 제시문 (라): 프란츠 카프카, 「변신」, (홍성광 옮김), 방민호 외 5인, 『문학』, 미래엔, 2018, 144-147쪽.
- 제시문 (마): 손봉호, 「나는 누구인가」, 한철우 외 6인, 『독서』, 비상, 2018, 103-107쪽.
- 제시문 (바): 「'타자 지향성'을 통해 알아보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 김영순 외 4인, 『사회·문화』, 교학사, 2018, 146쪽.
- 제시문 (사): 법정, 「설해목」, 조정래 외 26인, 『문학』, 해냄에듀, 2018, 284-285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창비, 2018)에 실린 박지원의 글 「예덕선생전」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명칭/호칭/지칭의 변화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이 제시문에서 작가는 엄 행수라는 하층 계층을 주요인물로 등장시켜 양반 계층의 허위 허식을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엄 행수는 천한 일을 도맡아 성실하게 일하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작품 속 또 다른 등장인물인 선귤자는 이런 엄 행수를 예덕 선생이라 높여 지칭하면서 칭송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동아출판, 2018)에 실린 채만식의 「미스터 방」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명칭/호칭/지칭의 변화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제시문에서 작가는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상 및 세태를 풍자적으로 그려낸다. 작품에 등장하는 백 주사는 일말의 역사의식도 없이 일제강점기에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이며, 또 다른 인물인 방삼복은 어떠한 사명감도 없이 외세에 기대어 출세한 기회주의자이다. 제시문에서 백 주사는 방삼복의 권력에 기대어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 그를 '미스터 방'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지학사, 2017)에 실린 장진의 「웰컴 투 동막골」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명칭/호칭/지칭의 변화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제시문은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 우연히 한 산골 마을에 모여든 국군과 인민군이 총과 수류탄을 들고 대치하게 된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 이 긴장 상황에서도 국군과 인민군은 서로의 나이를 묻고 답하면서 호칭을 바꿔 부르는 등, 같은 민족으로서 공유하는 문화적 동질감을 확인하게 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18)에 실린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명칭/호칭/지칭의 변화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또한, 출제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시문의 중간에 카프카의 작품집 『성』(강두식 옮김, 여명출판사, 1994)에서 일부분(242-243쪽)을 부분 발췌하여 편집하였다. 「변신」은 인간의 불안과 소외를 그린 작품으로, 제시문은 주인공인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면서 그의 가족에게 발생한 문제를 대화 장면으로 보여준다. 그레고르의 여동생은 오빠가 가족에게 경제적인 짐이 된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면서 '저것'으로 지칭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비상, 2018) 교과서에 실린 손봉호의 「나는 누구인가」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철학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나'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글쓴이는 마틴 부버의 사상에 기대어 자기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나'가 존재하는 양식이 '그것' 또는 '너'와 맺는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가 '그것'이 아닌 '너'와 맺는 관계의 양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사회·문화』(교학사, 2018) 교과서에 실린 「'타자 지향성'을 통해 알아보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문화를 비판하고 소수자를 위한 윤리의식을 제안한다. 글쓴이는 이 제시문에서 레비나스의 사상인 타자 지향성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보다는 타자를 우선시하고 이해하며 책임지는 환대의 문화를 소개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문학』(해냄에듀, 2018) 교과서에 실린 법정의 「설해목」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교술 장르의 맥을 잇는 현대 수필로, 인간의 삶과 자연의 이치를 통찰한 글이다. 제시문에 소개된 노승은 골칫거리인 소년을 훈계하는 대신 부드러운 손길로 보듬고, 부처님은 극악한 살인마마저도 따듯한 품으로 안는다. 이 두 사연을 통해 글쓴이는 차별 없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포용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문제 3] 수리논술 문제에 사용된 지문은 다음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들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좋은책신사고, 2020, 79-83쪽.
- 류희찬 외, 『확률과 통계』, III-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천재교과서, 2020, 80-84쪽.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I-1-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교학사, 2020, 82-88쪽.
- 황선욱 외,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미래엔, 2020, 79-85쪽.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좋은책신사고, 2020, 84-90쪽.
- 류희찬 외, 『확률과 통계』, III-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천재교과서, 2020, 85-92쪽.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I-1-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 교학사, 2020, 89-95쪽.
- 황선욱 외,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미래엔, 2020, 86-91쪽.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작품 속 인물 A가 인물 B를 일컫는 표현의 변화가 나타난다. 제시문 (가)~(라)에서 인물 A가 인물 B를 바꿔 부르는 '이유'를 찾고, 이렇게 바뀐 표현 속에 담긴 인물 A의 '감정'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에는 인물을 부르는 표현의 변화와 그 속에 담긴 감정이 나타난다. (가)의 선귤자는 사람들이 천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낮잡아 부르는 엄 행수의 근면하고 소탈한 삶을 높이 여겨 예덕선생이라 부른다. 이 존칭에는 벗을 넘어 선생으로 우러르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다. (나)의 백 주사는 보잘것없다가 미군 일을 돕게 되면서 신분 상승한 방삼복에게 미스터 방이라고 부른다. 이 호칭에는 자신과 삼복의 뒤바뀐 처지에 대한 굴욕감과 그를 통해 본인의 바람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다. (다)의 치성은 국군과의 대치 상황에서 서로의 나이를 알게 되면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자 현철을 소위라는 계급 대신 택기에게 형이라고 부르게 한다. 이 표현에는 민족적 동질감과 친밀감이 내포되어 있다. (라)의 여동생은 그레고르를 오빠라고 부르다가 그가 벌레로 변하면서 가족의 짐이자 위협이 되자 저것이라 지칭한다. 이는 무용한 존재가 된 오빠에 대한 원망과 경멸감의 표현이다. 이처럼 타인을 부르는 표현방식은 관계 맺음의 맥락에 따라 변화하며, 그 속에는 존경, 기대, 친밀, 경멸과 같은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다. [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여동생과 그레고르의 관계를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평가하고, 그레고르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여동생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의 논지에 의하면, (라)의 여동생과 오빠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대체 가능한 관계로,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다. 이 관계에서는 오빠뿐만 아니라 여동생 역시 오빠에게 너가 아닌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나와 너의 관계는 대체 불가능한 관계로, 주체와 주체의 관계이다. 이 관계에서는 여동생뿐만 아니라 오빠도 비로소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인격 전체가 대등하게 만나는 나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로나 대체될 수 있는 기능적 관계일 뿐이다. 한편, (바)의 관점에서 여동생에게 필요한 태도는 나보다 타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타자 지향성이다. 여동생은 나와 다른 존재인 오빠를 가족의 일원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위적 태도보다는 그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오빠를 책임지고 환대하는 윤리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사)를 고려하면 여동생에게 필요한 자세는 오빠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다. 여동생은 오빠를 힐난하며 소외시키지 말고 존재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 즉, 오빠를 감싸 안아 포용하는 온화한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570자]

[문제 3] 올해 계약자 그룹의 재분류 후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그룹에 속한 계약자 수가 각각 200명, 300명, 100명이라고 하자. 보험회사가 내년에 계약자들로부터 받을 연 보험료 총액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단, 보험 계약자의 추가 및 해약은 없다고 가정한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아)에 따르면 마을의 생활 기반이 무너진 것은 경제적 효용성 극대화가 초래한 마을 주민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 때문이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는 사회 전체의 부로 이어진다. 그러나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려고 주민들은 경쟁적으로 양 숫자를 늘렸고, 결국 양이 너무 많아져 한정된 자원인 초원이 황폐해졌다. 따라서 마을의 쇠퇴를 막기 위한 주민의 자세를 (차)에서 찾자면, 마을 주민들에게는 양을 키우되 공유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컨대 권리와 의무, 개인의 사익과 공동체의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명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350자)

▶ 올해의 각 계약자 그룹이 내년에 속하게 될 그룹에 대한 확률은 다음과 같다.

<표 1>		내년의 계약자 그룹: 확률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올해의 계약자 그룹	저위험군	0.1	0.5 (=0.2+0.3)	0.4 (=0.2+0.2)
	중위험군	0.1	0.2	0.7 (=1-0.3)
	고위험군	0	0.1	0.9 (=1-0.1)

▶ 내년의 각 그룹의 계약자 명수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표 2>		내년의 계약자 그룹: 명수 기댓값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올해의 계약자 그룹	저위험군	20 (=200×0.1)	100 (=200×0.5)	80 (=200×0.4)
	중위험군	30 (=300×0.1)	60 (=300×0.2)	210 (=300×0.7)
	고위험군	0 (=100×0)	10 (=100×0.1)	90 (=100×0.9)

▶ 내년의 각 그룹의 계약자 명수 및 보험료 합계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표 1>	내년의 계약자 그룹: 명수 및 보험료 합계의 기댓값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명수	50	170	380
보험료	2000(=50×40)	8500(=170×50)	22800 (=380×60)

▶ 따라서, 내년의 연 보험료 총액의 기댓값은, 2000 + 8500 + 22800 = 33300(만 원)이다.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인물A가 인물B를 바꿔 부르는 '이유'와, 바뀐 표현 속에 담긴 인물 A의 '감정'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 단, 인물 A와 인물 B를 지정하고, 바꿔 부른 호칭/명칭/지칭을 명시해야 함. (32점)

① **이유:** 선귤자가 천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낮잡아 부르는 엄 행수의 근면하고 소탈한 삶을 높이 여겨 예덕 선생이라 부름. (4점)
감정: 벗 이상의 선생으로 우러르는 깊은 존경심. (4점)

② **이유:** 백 주사가 보잘것없던 삼복이가 미군 일을 돕게 되면서 신분 상승한 것을 보며 미스터 방이라고 부름. (4점)
감정: 자신과 삼복의 뒤바뀐 처지에 대한 굴욕감과 그를 통해 본인의 바람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4점)

③ **이유:** 치성이 서로의 나이를 알게 되면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자 현철을 소위라는 계급 대신 택기에게 형이라고 부르게 함. (4점)
감정: 문화적 동질감과 친밀감. (4점)

④ **이유:** 여동생은 그레고르를 오빠라고 부르다가 그가 벌레로 변하면서 가족의 짐이 되자 저것이라 지칭함. (4점)
감정: 무용한 존재가 된 오빠에 대한 원망과 경멸감.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이유'와 '감정'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② 서론에서 문제를 요약하고, 결론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5점)**

[예시]

서론: (가)~(라)에는 인물을 부르는 표현의 변화와 그 속에 담긴 감정이 나타난다.
결론: 이처럼 타인을 부르는 표현방식은 관계 맺음의 맥락에 따라 변화하며, 그 속에는 존경, 기대, 친밀, 경멸과 같은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방식과 결과를 찾아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 (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에서 기술된 관계 맺음의 방식을 명확히 기술했는지 평가한다. (15점)

① '나'가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가변적인 존재임을 파악함. (5점)
② '나'와 '그것'의 관계가 차등적이며, 이 경우 '그것'이 대체 가능한 객체로 전락함을 밝힘. (5점)
③ '나'와 '너'의 관계가 대등하며, 이 경우 '너'뿐만 아니라 '나' 역시 하나의 온전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밝힘. (5점)

2) 제시문 (라)의 여동생과 그레고르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임을 밝히는지 평가한다. (5점)

3) (바), (사)를 고려하여 (라)의 여동생에게 필요한 자세를 도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① (바)의 타자 지향성을 설명하면서 수용과 환대에 대해 언급했음. (5점)
② 여동생이 그레고르를 이해하고 책임져야 함을 서술했음. (5점)
③ (사)에서 이야기하는 따듯한 사랑과 부드러운 자비에 대해 언급했음. (5점)
④ 여동생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여 그레고르를 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음. (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에서 기술된 관계 맺음의 방식을 명확히 기술 (15점)	'나'가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가변적인 존재임을 파악함	5점
		'나'와 '그것'의 관계가 차등적이며, 이 경우 '그것'이 대체 가능한 객체로 전락함을 밝힘	5점
		'나'와 '너'의 관계가 대등하며, 이 경우 '너'뿐만 아니라 '나' 역시 하나의 온전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밝힘	5점
	② (라)의 여동생과 그레고르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임을 밝힘 (5점)	(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동생과 그레고르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임을 밝힘	5점
	③ (바), (사) 를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여동생에게 필요한 자세를 도출함 (20점)	(바)의 타자 지향성을 설명하면서 수용과 환대에 대해 언급했음	5점
		여동생이 그레고르를 이해하고 책임져야 함을 서술했음	5점
		(사)에서 이야기하는 따듯한 사랑과 부드러운 자비에 대해 언급했음	5점
		여동생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여 그레고르를 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음	5점

[문제 3] 20점 만점

[문제 3 채점 기준]

1) 내년의 계약자 그룹의 확률 구조(<표 1> 참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 +6점
2) 내년의 계약자 그룹의 명수의 기댓값 구조(<표 2> 참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 +6점
3) 내년의 계약자 그룹의 보험료의 기댓값 구조(<표 3> 참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 +5점
4) 내년의 연 보험료 총액의 기댓값 '33300(만원)'을 정확하게 계산한 경우: +3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2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미래를 움직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 교육과 첨단 인프라

오늘도 중앙대학교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꿈이 한 뼘 더 자라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답 안 지 (인문사회)

모 집 단 위

성 명

수 험 번 호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생 년 월 일 (예 : 040301)					
⓪	⓪	⓪	⓪	⓪	⓪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⑥	⑥	⑥	⑥	⑥	⑥
⑦	⑦	⑦	⑦	⑦	⑦
⑧	⑧	⑧	⑧	⑧	⑧
⑨	⑨	⑨	⑨	⑨	⑨

※감독위원 서명란※

※ 문제 1~3의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시오.

70 140 210 280 350 420 490 560 70

답안지 매수 1장

140
210
280
350
420
490
560

문제2

70
140
210
280
350

문제3

지정된 구역에만 답안을 작성 할 것